

조선 17-18세기 철화백자의 특징과 성격 가마터 출토품을 중심으로

송 인 희*

- I. 머리말
- II. 철화백자의 제작 배경과 현황
- III. 철화백자의 조형적 특성
- IV. 철화백자의 성격과 의의
- V. 맺음말

I. 머리말

조선의 17-18세기는 도자사적으로 조선전기에서 후기로 이어지며 전통과 새로운 양상이 공존하는 때이다. 이 시기는 문헌 기록과 출토유물을 통해 이전 시기에 비해 철화백자가 활발하게 제작되었음이 확인되고 있다. 이에 주목하여 몇몇 연구자들은 당시 요업 배경과 더불어 철화백자의 양식적 특징을 파악하려는 연구를 일찍부터 시도하였다.

철화백자는 백자에 산화철 성분으로 인해 붉은색을 띠는 흑갈색 안료를 사용해 문양을 시문한 것으로, ‘鐵繪’ 백자 또는 ‘鐵砂’ 백자라고도 불려왔다. 철화백자에 대한 연구는 경기도 광주

* 상명대학교박물관 학예연구사

일대 조선시대 관요지의 학술 조사가 진행되면서 본격화되었고, 그 조사결과를 토대로 출토 유물과 전세품을 비교 분석하여 관요산 철화백자 중심의 양식적 변화를 파악하려는 연구가 축적되었다.¹ 한편, 관요지 이외의 일부 지방 요지에서도 철화백자의 제작이 확인되면서 17세기를 철화백자의 중심 제작 시기로 보는 인식이 자리잡게 되었다.² 2000년대 이후에는 여러 지역의 가마터 발굴 조사로 조선시대 도자사의 연구 범위가 확대되면서 지방 가마 생산품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도 추가되었다.³

따라서 지금까지 이루어진 연구 및 조사 성과를 바탕으로 조선시대 철화백자를 중앙과 지방을 이분하거나 또는 개별적으로 다루기보다는 상호 관계속에서 이해할 필요성이 요망되어 왔다. 또 가마터 이외 다양한 성격의 유적 조사를 통해 꾸준히 축적되어 온 철화백자의 출토 상황 역시 총체적인 관점에서 재접근의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최근까지 밝혀진 가마터 출토 현황의 검토를 통해 조선시대 관요와 관요 이외의 철화백자 제작 양상과 조형적 특징을 이해하고 17-18세기 철화백자의 시기적 특성을 입체적으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철화백자의 제작 배경을 살피고 각지의 가마터 출토품을 시문 기종과 문양소재의 표현이라는 측면에서 다루어, 관요와 관요 이외 가마에서 보이는 차이점과 상호 연관의 가능성을 검토할 것이다. 또 소비유적을 포함하는 다양한 유적에서의 출토 상황을 참조하여 문헌기록에서 확인되는 인식과 사용 환경의 변화상과 관련하여 17-18세기 철화백자의 성격과 의의를 포괄적으로 이해해보고자 한다.

¹ 鄭良謨, 『李朝陶磁の編年』, 『世界陶磁全集』 19, 李朝(東京:小學館, 1980) 및 『白磁·粉青沙器』, 『國寶』 8(예경산업사, 1984), 蔡孝珍, 『朝鮮 鐵繪白磁의 研究』(홍익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1985), 조경숙, 『朝鮮時代 廣州 仙東里窯에 대한 研究』(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1986), 林仙卿, 『朝鮮時代 鐵畫白磁의 變遷에 관한 研究』(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1992), 方炳善, 『孝·肅宗時代의 陶磁』, 『講座美術史』 6(한국미술사연구소, 1994); 『雲龍文 분석을 통해서 본 조선 후기 백자의 편년 체제』, 『美術史學研究』 220(한국미술사학회, 1999); 『17세기, 인·숙종기의 백자』, 『講座美術史』 33(한국미술사연구소, 2009), 張起熏, 『朝鮮時代 17世紀 白磁의 研究 - 廣州 分院窯址 出土品을 中心으로 -』(홍익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1996); 『朝鮮時代 白磁龍樽의 樣式 變遷考』, 『미술사연구』 12(미술사연구회, 1998); 『朝鮮 17世紀 前半 分院의 白磁樣式 變化』, 『美術史學研究』 224(한국미술사학회, 1999), 卞銀淑, 『17世紀 鐵畫白磁 研究-京畿道 廣州官窯를 中心으로』(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2000) 등.

² 姜敬淑, 『韓國陶磁史』(일지사, 1989), 鄭良謨, 『韓國의 陶磁器』(문예출판사, 1991), 尹龍二, 『韓國陶磁史研究』(문예출판사, 1993), 김영원, 『조선시대 도자기』(서울대학교출판부, 2003), 방병선, 『조선 후기 백자 연구』(일지사, 2000) 등.

³ 주요 연구는 다음과 같다: 朴亨順, 『朝鮮時代 地方의 白磁가마에 대한 研究 - 忠南, 全羅, 慶尙道를 中心으로』(공주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2004), 崔允貞, 『朝鮮 17-18世紀 前半 地方白磁 研究』(홍익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2004), 방병선, 『서울 지역 요지(窯址) 출토 조선 도자』, 『서울의 도요지와陶磁器』(서울역사박물관, 2006), 김정애, 『조선 후기 지방 백자 가마와 공방의 성격』(목포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2007) 등.

II. 철화백자의 제작 배경과 현황

1. 관요의 도자 제작 현황

17세기 이후 관요에서 철화백자 제작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연이은 전란과 도자 제작 여건의 부족으로 청화백자 제작이 원활치 못했던 점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즉, 전반적인 도자 제작 여건의 악화와 더불어 청화 안료의 확보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 주된 원인이었다.⁴

왕실용 청화백자의 주요 기물인 ‘畫樽’은 청화의 부족으로 한동안 ‘假畫’로 대처해 해결하려 했으나 비에 젖거나 마모되는 등 그 쓰임에 폐단이 적지 않았다. 이에 중국으로 가는 역관을 통해 중국산 청화백자를 구입하려 했으나 불가능해지면서, 새로운 해결 방안으로 철화안료인 ‘石間朱’를 왕실용 백자 제작에 사용하게 된 것이다.⁵

관요가 있었던 경기도 광주 일대는 1980년대 이래 활발한 학술 조사가 이루어졌다. 특히 1986년과 2000년에 걸쳐 광주 지역 전체를 포괄하는 지표조사 보고가 이루어지면서 조선시대 관요 생산품의 전체적인 윤곽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또 지속적으로 가마터에 대한 발굴조사가 추가되고 있다(표 1).⁶

경기도 광주 일대 가마터는 지표조사 결과 17-18세기에 걸쳐 干支銘이 새겨진 파편들이 출토되었으며, 가마의 이동 상황에 관한 기록과 연관하여 운영 시기를 추정할 수 있다(표 2).⁷ 철화백자는 이 가운데 상림리, 선동리를 거쳐 관음리, 금사리 등지의 가마터에서 확인되어 17세기 이후

⁴ 『光海君日記』光海君10年(1618)閏4月3日辛酉條 “사용원이 아뢰기를, 조정의 연향 때 사용하는 화준이 난리를 치른 뒤로 하나도 남아있는 것이 없으므로 매번 푸른 채색을 사다가 구워내려 했습니다만, 사울 길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연향하는 예가 있을 때마다 어쩔 수 없이 가화를 사용합니다.”(“司院啓曰, 朝家宴享所用畫樽, 自經亂後, 蕩無遺在, 每欲買靑燐造, 而絕無貿易之路, 凡遇宴禮, 不得已假畫而用之”)

⁵ 『承政院日記』仁祖12年(1634)5月18日癸卯條 “사신에게 연향을 베풀 때 소용되는 화룡준에 대하여 전일에는 가화룡준을 썼는데 그것을 지고 왕래할 때 그림이 벗겨지는 폐단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본원에서 비용을 마련하여 부경하는 역관에게 주고서 사오도록 한 일이 비밀비재하였습니다. 그런데 역관 등이 칭탈하고서 사오지 않아 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석간주로 기화하여 화룡준을 구워 만들어 당차를 접견할 때 모두 이것으로 썼습니다.”(“天使宴享時所用畫龍樽, 前日則假畫龍樽用之, 其負持往來之際, 多有脫畫之弊, 故自本院備價, 付與赴京譯官, 使之買來, 非一非再, 而譯官等稱煩, 不爲買來, 以此, 不得已以石間朱起畫, 燐造龍樽唐差接見時, 皆以此用之”)

⁶ 본 연구에서 경기도 광주 일대 관요 추정 지역의 가마터를 언급하는 경우, 국립중앙박물관과 경기도박물관에서 실시한 지표조사 자료(국립중앙박물관·경기도박물관, 『京畿道廣州中央官窯』, 2000)를 중심으로, 일부 발굴이 진행된 가마터의 발굴보고서와 현장설명회 자료 등을 활용했다.

⁷ 17-18세기 관요의 운영시기에 대해서는 연구자에 따라 다소 상이한 견해가 제시된 바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분석대상으로 파악한 자료에 대해 기본적으로 『京畿道廣州中央官窯』보고서의 견해를 따랐다.

표 1 경기도 광주 일대 철화백자 출토 가마터 조사 현황

유적명	보고서명	조사기관	발행년도	조사성격
광주 관요	『韓國白磁陶窯址』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6	지표
광주 관요	『京畿道廣州中央官窯』	국립중앙박물관, 경기도박물관	2000	지표
광주 관요	『廣州의 朝鮮白磁窯址』	조선관요박물관(現 경기도자박물관)	2004	지표
광주 선동리	『廣州 朝鮮白磁窯址 發掘調査報告』	이화여자대학교박물관	1986	발굴
광주 송정동	『광주 시청사 이전 부지 문화재 시·발굴 조사-지도위원회 회의 자료-』	조선관요박물관 (現 경기도자박물관)	2004 2006	발굴
광주 신대리	『광주 신대리 공장 신축부지 내 백자가마 발굴조사-지도위원회의 자료-』	조선관요박물관 (現 경기도자박물관)	2007	발굴
용인 왕산리	『한국외대 용인캠퍼스 제2기숙사 부지 내 문화유적 발굴조사-지도위원회의 자료-』	한국문화유산연구원	2010	발굴

표 2 17-18세기 관요 추정 운영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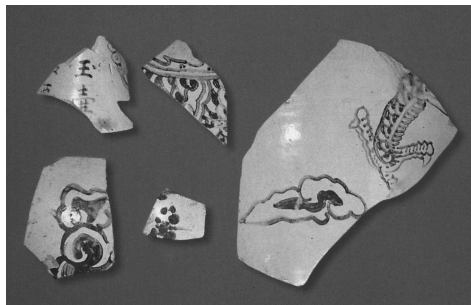
소재지		추정시기	관련기록	발행년도
광주읍	탄벌리	1606년-1612년경		丙午, 丁未, 戊申, 己酉, 庚戌, 辛亥, 壬子
초월면	학동리	1613년-1615년경		癸丑, 乙卯
도척면	상림리	1629년-1640년경		辛未, 癸酉-丙子, 乙亥, 庚辰
초월면	선동리	1640년-1649년경		庚辰, 辛巳, 壬午, 癸未, 甲申, 乙酉, 丙戌, 丁亥, 戊子, 己丑
광주읍	송정동	1649년-1659년경	『承政院日記』仁祖26年11月9日條	己丑, 庚寅, 辛卯, 壬辰, 癸巳, 己亥
실촌면	유사리	1661년-1664년경	『承政院日記』肅宗2年8月1日條	辛丑, 癸卯, 甲辰
실촌면	신대리	1665년-1677년경	『承政院日記』肅宗2年8月28日條	乙卯, 甲寅, 丙口, 癸口, 乙口
초월면	지월리	1677년-1680년대	『承政院日記』肅宗2年8月28日條	
도척면	궁평리	17세기 말-18세기 초		
퇴촌면	관음리	17세기 말-18세기 초		
실촌면	오향리	1717년-1721년경	『承政院日記』景宗即位年12月17日條	
남종면	금사리	1721년-1752년경	『備邊司謄錄』英祖8年8月27日條 外	
남종면	분원리	1752년-19세기 말	『輿地圖書』楊根郡 物産條	

관요에서 철화백자가 제작되었다는 문헌 기록과 부합하며, 선동리와 송정동, 신대리 가마터는 발굴이 이루어졌다. 최근에는 인근의 용인 왕산리 가마터에서도 철화백자의 제작이 확인되었는데, 가마 구조 및 ‘左’, ‘右’, ‘別’ 과 같은 명문편이 포함된 출토 유물의 성격을 통해 16세기 중반에서 17세기 초반 운영된 관요권의 가마로 판단된다. 특히 ‘丙寅’ (1526년 또는 1626년)과 ‘丁卯’ (1567년 또는 1627년)의 간지명을 통해 요업 시기를 17세기 전반으로 상정할 경우, 인접한 상림리 지역 가마터와 비슷하거나 바로 앞선 시기 철화백자의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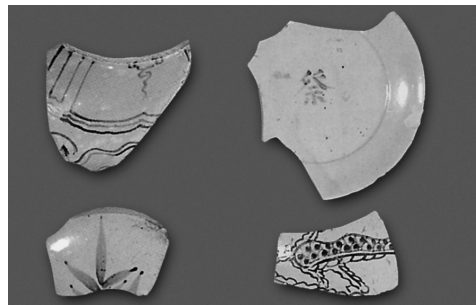
이에 따라, 17세기 전반기의 제작 상황은 경기도 용인 왕산리와 광주 상림리, 선동리 가마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들 가마터에서는 ‘화준’과 관련한 호의 제작과 함께, ‘祭’자를 시문한 접시 등의 제기류, 연적, 묘지석 등의 철화백자가 출토되었으며, 문양 소재로는 운룡문과 함께 매·난·국·죽문과 포도문, 詩文 등이 섬세하게 표현되었다(도 1, 2). 다양한 기종에 정치하게 표현된 철화문의 양상은 17세기 전반 청화안료의 부족으로 인한 철화백자의 제작 및 왕실용 백자 제작에 관련한 문헌기록과 부합하며, 이전 시기에는 시문안료로 뚜렷하게 인식되지 않았던 철화안료가 이 시기에 이르러 ‘부득이’ 하거나 본격적으로 문양자기에 활용되는 상황을 보여준다.

17세기 중반 송정동 등지의 가마터에서도 호와 병, 발과 접시 등에서 철화백자가 확인되는데, 문양 표현에서 17세기 전반과는 다른 경향이 나타난다. 즉, 매화문 등의 문양 소재에 대한 섬세한 표현이 지속되면서도 동시에 죽문 등의 표현에서 소재의 특징을 간략히 나타냈다(도 3). 이러한 경향은 17세기 후반 신대리 가마터에서 더욱 확연히 드러난다. 호와 병, 발과 접시 등에 철화로 시문된 운룡문, 죽문, 국화문, 초화문의 표현이 전반적으로 소재의 특징을 단순화했으며, 간략화된 표현을 중심으로 조질백자에서도 확인되어 질적으로도 다양성을 보였다(도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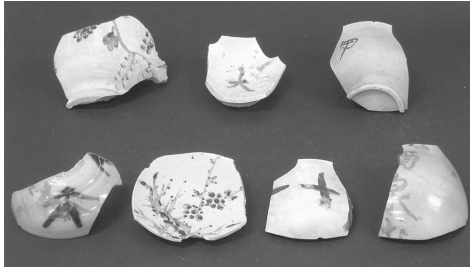
관요 가마터에서 확인되는 이같은 변화는 17세기 중후반에 청화백자 제작이 재개되면서 상대적으로 철화에 대한 중요도가 감소하면서 보이는 변화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조선전기 이래 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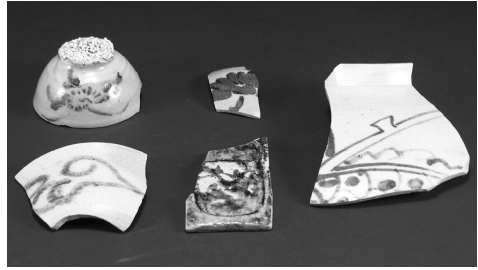
도 1 경기도 광주 상림리 가마터 수습품, 17세기, 국립중앙박물관 수습



도 2 경기도 광주 선동리 가마터 수습품, 17세기, 국립중앙박물관 수습



도 3 경기도 광주 송정동 5호 가마터 출토품, 17세기, 경기도자박물관 발굴



도 4 경기도 광주 신대리 18호 가마터 출토품, 17세기, 경기도자박물관 발굴

화안료는 대체로 사행길에 역관이나 畫員 등을 통해 구입되었으며,⁸ 청화안료의 부족이 호소되었던 17세기 전반에도 안료의 수입이나 중국으로부터의 화룡준 구입 시도 역시 같은 방식으로 모색되었다.⁹ 그러나 17세기 전중반까지 국내 상황의 악화에 따라 도자 제작 자체의 어려움도 물론이겠으나, 1645년 무렵에 이르러서야 청과의 조공체제가 정례화되었으므로 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청화안료의 수급도 대체로 17세기 중반 이후에야 비교적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었을 것이다.¹⁰ 17세기 후반 청화안료의 수급 재개는 1673년의 기록에서 당시 왕실용 자기 지식을 응당 청화백자로 제작한다고 하여 왕실용 백자 제작에 청화안료의 사용을 당연시하는 것에서도 확인된다.¹¹ 또 삼십여 년 전인 1642년에는 철화를 사용했으므로, 이러한 상황이 17세기 전반과 비교하면 관요내에서 철화백자 제작에 대한 비중을 약하게 하는 원인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이미 주요 시문안료로 부각된 철화안료는 섬세한 문양 표현이 가능하면서도 청화안료에 비해 구득이 용이하여 취급부담이 적다는 점에서 문양자기에의 활용 가능성은 오히려 높았을 것이다.¹²

따라서 17세기 동안 본격적인 시문안료로 정착되었던 철화안료는 18세기에도 지속적으로 활용되었다. 18세기 전반기 관요지로 추정되는 금사리 가마터 등지에서는 청화백자가 제작되는

8 尹微靖, 「15·16世紀 靑畫白磁 研究」(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2002), pp. 15-33 참조.

9 『光海君日記』光海君10年(1618)閏4月3日 辛酉條 및 『承政院日記』仁祖12年(1634)5月18日 癸卯條: 본고 주) 4, 5 참조.

10 李哲成, 『朝鮮後期 對淸貿易史 研究』(국학자료원, 2000) pp. 44-45 및 유승주·이철성 지음, 『조선후기 중국과의 무역사』(경인문화사, 2002) pp. 15-70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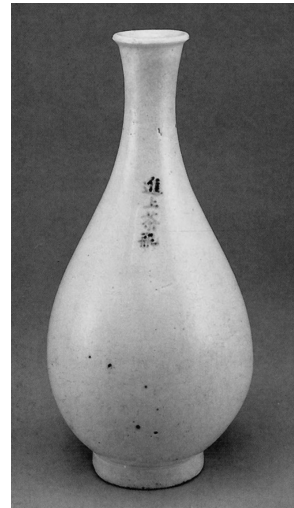
11 『承政院日記』顯宗14年(1673)7月5日條 “유증이 아뢰길, 자기지식은…응당 회회청으로 씁니다…임금께서 말씀하시길, 대신들 가운데 일찍이 써본 자는 없는가, 하시니 수홍이 아뢰길, 정영이 말아 쓴 바가 있습니다. 하였다. 정영이 아뢰길, 신이 삼십년전 한차례 써본 바가 있습니다…임금이 말씀하시길, 어느 해인가, 하시니 정영이 아뢰길, 임오년간 이옵니다… 쓸 때에는 석간주로 썼습니다.” (“維重日, 磁器與誌石有異, 當以回回靑書之…上日, 朝士中無有曾寫者耶, 壽興日, 正英當書之云矣, 正英日, 臣三十歲前果嘗一次書之…上日, 何年耶, 正英日, 壬午年閏矣…正英日…書之時, 以石間朱, 書之矣”)

가운데 간략한 운룡문, 초화문 등을 시문한 소량의 철화백자가 확인되었다. 또 쥘내 소용의 백자 제작에도 철화안료의 쓰임은 유지되어, 18세기 전반 영조대 기록에는 그 쓰임이 단순한 다병에 머무르지 않고 당시 빈번했던 왕실의 제사의식 등에서 사용되기 위한 것으로 추정되는 ‘進上茶瓶’을 제작하도록 한 내용과 이에 부합하는 전세품이 알려져 있다(도 5).¹³

2. 요업의 전국적 확대와 철화백자의 제작

조선 초 『經國大典』에서 경공장과 외공장을 파악한 이래, 사기장들은 관요에 교대로 입역하여 왕실과各司 소용의 기물을 제작하거나 지방 관아와 병영의 수요를 충당했으며, 원칙적으로는 공역을 부담하지 않는 私工匠으로 요업 활동을 벌이기도 했다. 실제로 16세기 후반의 기록에는 이전시기부터 지방 병영에서 인근 지역의 사기장에게 자기를 바치게 했다는 내용이 확인된다.¹⁴ 또 경상도 星州 지역에는 공식적으로 외공장 가운데 사기장이 포함되지 않았으나, 16세기 중반 기록에는 사기장이 존재하여 관역을 피하려는 여러 시도로부터 이와 무관하게 요업을 벌이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¹⁵

17세기에 걸쳐 나타나는 대동법의 시행과 立役 체제의 변화는 관요 내 도자 제작 환경과 각



도 5 백자철화진상다병명병, 18세기, 높이 39.5 cm, 해강도자미술관 소장

¹² 이러한 점에서 경기도 광주 신대리 가마터 출토품 가운데 철화안료를 시문하기 전 시문 부위에 먼저 백토를 얇게 바른 것으로 보이는 초벌편의 예는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이는 제작상의 난점을 최소화하고 시문 효율을 높이기 위한 기술적 고려가 있었던 것으로, 관요에서 철화안료의 쓰임이 정착되는 측면과 관련이 깊다고 여겨진다. 철화안료 시문 과정에서의 보조제의 역할과 관련해서는 방병선, 『조선후기 백자 연구』(일지사, 2000), pp. 228-229 참조.

¹³ 영조가 세제 시절 사용원 제조를 역임했을 때(1710-1712) 병에 ‘進上茶瓶’의 글자를 철화안료로 써넣게 했다는 기록으로부터 제작 시기가 추정되고 있다: 『承政院日記』英祖3年(1727) 10월 21日 癸卯條: 〈進上茶瓶銘瓶〉의 용도와 관련해서는 安星稀, 『朝鮮時代 陶器祭器 研究』(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2005), pp. 67-68 및 鄭英善, 『茶禮祭祀의 淵源과 展開 및 그 特性에 관한 研究』(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2005), p. 82 참조.

¹⁴ 홍가신(洪可臣, 1541-1615) 『晩全集』卷2 兵營沙器報文 在扶餘時(1574-1578) “당제 병영이 이 마을에 사기를 강제로 바치게 하니 이 마을에 장인이 도자기를 변조하는 곳이 있기 때문이다.”(“當初兵營, 卜定沙器於此縣者, 以其縣有匠人鑄造之處故爾”)

¹⁵ 이문건(李文健, 1495-1567) 『默齋日記』卷7 (1557년 2월 19일) “신목이 와서 말하기를 법수 사기장 여럿을 완호해주고 그릇을 거두자고 하였다”(“信默來見言, 法水沙器匠數店, 可完護收器用之云云”); 卷9 (1563년 7월 20일) “사기장 천인 손이 와서 말하기를 호주가 추쇄하여 관역에 속하게 하려 한다고 하였다”(“沙器匠千仁孫來言, 戶主欲刷屬官役云”); 이정수, 『默齋日記』를 통해 본 지방 匠人들의 삶, 『지역과 역사』 18호(부경역사연구소, 2006), p. 200, 207 참조.

지의 요업 활동에도 영향을 미쳤다. 특히, 일년에 세 차례로 나누어 관요에 입역하던 사기장을 분원내 거주하며 전속으로 입역하게 하는 ‘通三番’ 체제로 변화하면서, 이전 시기 관요에 입역해야 했던 지방 사기장들이 각지의 수요를 담당하는 역할은 더 확고해졌을 것이다. 즉, 지방 장인들은 입역의무가 없어진 대신 각 지방에 匠稅를 납부하였는데, 소용 물품으로도 수취할 수 있었으므로 각지의 사기장들은 지방의 수요에 더욱 밀착될 수 있었을 것이다. 일례로, 17세기 후반 경상도 단성현에서는 당시 장인의 명칭과 소속처를 명기할 정도로 비교적 상세히 조사된 호적대장에 총 23인의 사기장이 기재되어있으며, 6인의 사기장이 해당 지방관아인 ‘본관’에 소속되어 있다. 이는 『경국대전』의 단성현 외공장이 1인이었던 것과 비교해 이 시기 지방에서의 장인 파악과 요업 상황의 단면을 보여준다.¹⁶

17세기 이후 지방에서의 활발한 요업 활동은 18세기 전반 이미 안면도와 변산 일대에만 오십여 가구당 한 곳의 사기점이 있을 정도였다.¹⁷ 18세기를 거쳐 19세기 무렵에는 각지에서 장인들에 의한 店村이 형성되기에 이르렀는데,¹⁸ 19세기 전반 지방 관아에서 소용 물품을 이들 점촌으로부터 수취하고 있다는 기록에서와 같이 각지의 요업 활동은 지역적 수요와 무관하지 않았을 것이다.¹⁹

이처럼 요업이 확대되면서 철화백자를 제작했던 가마터의 분포 역시 전국적으로 나타난다. 발굴조사는 경기도와 충청도, 전라도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지표조사를 통해서도 많은 지역에서 철화백자가 확인되어 전체적인 제작 양상을 파악할 수 있다(표 3).

관요 이외의 가마터들은 분포 범위가 넓고 기록이나 편년자료가 드물어 가마터들 간의 상대 비교를 통해 운영시기의 파악이 가능하다. 철화백자가 제작되었던 가마터는 가마구조와 번조받침 등 요업기술의 변화와 출토유물의 성격을 통해 대략 17세기 후반에서 18세기로 운영시기가 추정된다. 이들 가마터는 발과 접시류가 주 생산품으로, 관요 및 기타 가마터들의 제작경향과 비교하여 대략적인 운영시기 및 가마터별 선후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²⁰ 이에 따르면 안성 화곡리와 충주 하구암리, 장성 추암리와 곡성 송강리, 순천 후곡리 가마터는 비교적 앞선 시기에 운영된 것

16 김경란, 「조선 후기 良役政策의 전개와 匠人파악의 변화」, 『韓國史學報』 29호 (고려사학회, 2007) pp. 144-156 참조.

17 『備邊司謄錄』 肅宗42年(1716) 1月27日條 “安眠島及邊山…而山内外人接民家一千二百七十戶…沙器店二十七戶”

18 홍희유, 『조선수공업사』 (백산자료원, 1991), pp. 283-287 참조.

19 정약용(丁若鏞, 1762-1836) 『牧民心書』 卷6 戶典六條 平賦 “店村之庇, 官之貪也. 鎗器, 鐵器, 磁器, 瓦器, 竹器, 柳器之等, 取用無節”

20 발과 접시의 기형변화를 통해 가마터별 운영시기 및 선후관계를 추론한 내용은 宋仁熙, 「朝鮮 17-18世紀 鐵畫白磁 研究」(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2008), pp. 38-48 참조.

표 3 경기도 광주 이외 지역의 철화백자 출토 가마터 조사 현황

지역		보고서명	조사기관	발행년도	조사성격
경기	서울 신림동·봉천동	『서울특별시 문화유적 지표조사 종합보고서 제1권』	서울역사박물관	2005	지표
	안성 화곡리	『安城 和谷里陶窯址』	이화여자대학교박물관	2000	발굴
	가평 하판리	『가평 하면·일동 간 도로확장공사 구간 내 문화재 발굴조사 -지도위원회 회의자료-』	경기도자박물관	2008	발굴
		『가평 하면·포천 일동간 도로 확·포장공사 구간 내 문화유적 발굴조사 가평 하판리 웃노채 가마터 -지도위원회의 자료-』	한국문화유산연구원	2008	발굴
충청	충주 미륵리	『충주 미륵리 백자가마터』	충북대학교박물관	1995	발굴
	충주 하구암리	『中部內陸高速道路 忠州區間 文化遺蹟』	한국문화재보호재단	2001	발굴
	영동 노근리	『永同 沙夫里·老斤里 陶窯址』	중앙문화재연구원	2003	발굴
	대전 장안동	『大田 長安洞白磁窯址』	충남발전연구원	2002	발굴
	청양 대박리	『靑陽 大朴里白磁窯址』	중앙문화재연구원	2007	발굴
경상	상주 호음리	『尙州 好音里 遺蹟』	대경문화재연구원	2007	발굴
전라	순천 후곡리	『住岩댐 水沒地域 文化遺蹟 發掘調査 報告書-昇州 後谷里 白磁陶窯址』	이화여자대학교박물관	1988	발굴
	곡성 후곡리	『湖南高速道路擴張區間(古西-順天間) 文化遺蹟發掘調査報告書-谷城 松江里』	국립광주박물관	1997	발굴
	순천 문길리	『順天 文吉里 白磁窯址』	중앙문화재연구원	2004	발굴
	장흥 용문리	『탐진다목적댐 수몰지역 문화유적Ⅴ -장흥 용문리 조선백자요지』	목포대학교박물관	2005	발굴
	장성 추암리	『長成 鷲岩里窯址』	호남문화재연구원	2006	발굴

으로, 충주 노근리와 미륵리, 순천 문길리 1호와 장흥 용문리 가마터가 그보다 다소 늦은 시기에 운영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어 청양 대박리와 대전 장안동, 순천 문길리 2호와 3호 가마터는 이 가운데 비교적 늦은 시기에 운영된 것으로 추정된다.

가마터별 출토품 중 철화백자는 발과 접시, 호와 병의 기종에 한하여 소량으로 확인되므로, 철화백자의 제작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²¹ 관요 이외 가마터의 철화백자는 운룡문이 확인된 경기도 가평 하판리와 퇴적 층위별로 비교적 다양한 문양이 출토된 전라도 장

성 추암리 가마터의 예를 제외하면 대개 간략한 형태의 문양을 시문하였다. 하판리나 추암리 가마터 출토품 역시 실제 표현 수법은 간략하여, 관요 외 가마에서 가능한 문양의 시문 수준을 보여준다. 다만, 하판리 가마터에서 출토된 운룡문이나 추암리 가마터에서 보이는 죽문의 표현 양상은 17세기 중후반 관요의 송정동과 신대리 가마터에서 보이는 간략화 경향과 유사하다(도 6). 초화문의 표현도 비교적 복잡한 형태에서 점차 단순하고 간략하게 변화하는데, 장성 추암리 가마터에서는 이른 시기의 층위일수록 문양 소재의 특징을 분명하게 표현한 병과 비교적 크기가 큰 호의 출토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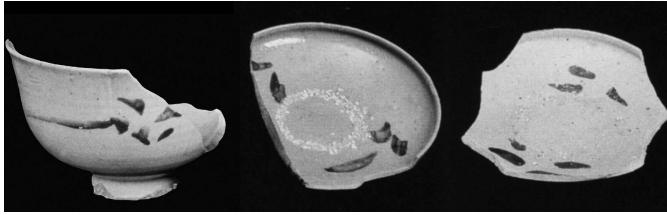


도 6 전남 장성 추암리 가마터 출토품, 17세기, 호남문화재연구원 발굴

가 많으며, 시기가 늦은 퇴적 층위에서는 생략되거나 추상화된 형태를 표현한 小壺가 주로 확인되었다. 안성 화곡리 가마터에서 출토된 접시의 내저면에도 보다 이른 시기의 기형에 상대적으로 복잡한 구성의 문양이 표현되었으며, 좀 더 단순화된 문양은 늦은 시기의 기형을 중심으로 시문된 바 있다.

한편, 경기도 안성 화곡리를 비롯하여 충청도 일대의 가마터들에서는 접시의 내저면과 발의 외면에 (표 4-A, B)와 같이 주로 2-3개의 점 또는 짧은 선과 같은 문양을 표현했으며, 동일 유형이 서울, 경기 및 충청도 일대의 지표조사를 통해서도 주요 문양으로 확인된다(도 7). 이에 비해 곡성 송강리와 순천 후곡리 등 전라도 일대의 가마터에서는 주로 호와 병을 중심으로 (표 4-C-F)에서와 같이 여러 개의 점을 모아 찍거나 기호화된 문양이 나타났다(도 8). 이러한 차이는 가마터 출토품 외에 경기도와 충청도 일대 여러 유적과 전라도 일대 유적에서 출토된 철화백자에서도 찾을 수 있다. 이는 지방의 요업이 지역적 수요에 대응했던 것과 관련해 철화백자 역시 각지에서 수급되는 상황을 보이는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운영시기가 늦은 가마터 가운데 충청도 청양 대박

21 철화백자의 출토율이 정확한 수치로 보고된 경우는 드물지만,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을 토대로 전체 유물에 대한 비율은 어느 정도 파악이 가능할 것이다. 이에 따르면 각 가마터에서 철화백자의 비중은 대개 10% 미만이며, 철화백자의 출토율이 가장 높은 편에 속하는 장성 추암리 가마터의 경우에도 전체 1,621점의 유물 가운데 138점의 철화백자가 소개되어 대략 8.5%의 비율을 보이는 정도다.



도 7 경기도 안성 화곡리
가마터 출토품,
17-18세기,
이화여자대학교박물관 발굴



도 8 전남 순천 후곡리 가마터 출토품,
17-18세기, 이화여자대학교박물관 발굴



도 9 대전 장안동 가마터 출토품, 18세기,
충남발전연구원 발굴

리와 대전 장안동 가마터에서는 앞서 언급한 충청도 지역의 가마터들과 달리 (표 4-E, F)와 같은 기호화된 문양이 주로 확인되었다(도 9). 마찬가지로 전라도 지역에서도 늦은 시기 운영된 순천 문길리와 장흥 용문리 가마터에서는 호와 병보다는 발과 접시에 시문된 예가 많아, 제작 경향이 공통화되는 것을 볼 수 있다.

표 4 경기도 광주 이외 가마터 출토 철화백자 문양의 주요 유형

A	B	C	D	E	F

이상과 같이, 관요에서의 철화백자 제작은 청화안료의 수급에 따라 철화안료의 활용에 변화가 생기면서 시기적인 변화를 보였다. 관요 이외 지역에서도 각지의 수요에 대응하는 요업 활동으로 철화백자가 제작되었으며 지역적 특색도 나타났다. 다만, 가마터 분포와는 별개로, 각 가마터의 철화백자 출토량에 한계가 있고 발과 접시, 호와 병류를 중심으로 대부분 초화문과 간략한

문양이 주로 시문된 양상으로 보아, 전반적인 철화백자의 수급에 얼마간 제한성은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Ⅲ. 철화백자의 조형적 특성

본 장에서는 17-18세기 철화백자의 조형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출토품을 중심으로 시문 기종과 문양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 과정을 통해 철화백자의 제작 경향을 폭넓게 살피고, 전세품과 특정 가마터 출토품을 위주로 막연히 17-18세기로 추정되던 철화백자의 제작양상을 보다 유기적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1. 철화시문 주요 기종을 통해 본 제작 양상

앞 장에서 살펴본 바 철화백자는 크게 호와 병, 발과 접시의 기종을 중심으로 확인되고 있다. 17세기 전반경 관요지에서는 호와 병, 접시, 연적, 묘지, 합 등의 다양한 기종에 섬세한 문양을 시문한 철화백자가 출토되는데, 이 가운데 특히 제기를 포함한 호와 병, 접시의 제작이 주종을 이룬다. 17세기 중후반 이후로는 문양의 간략화가 진행되면서 호와 병, 발과 접시 등의 철화시문이 두드러진다. 관요 이외의 가마터에서도 발과 접시 및 호와 병류에 치중해 철화가 시문되는 경향이 짙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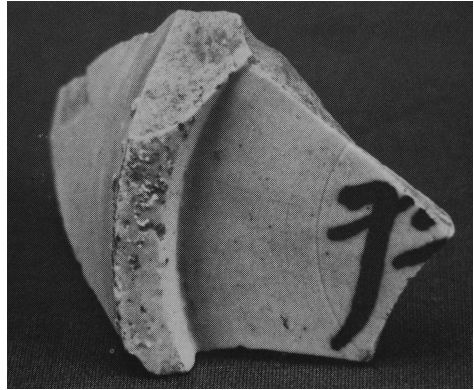
(1) 호

호의 형태는 건부에서 최대 지름을 이루며 저부로 갈수록 좁아지는 입호와 최대 지름이 동체의 중앙 부근에 있는 원호로 크게 나누어볼 수 있으며, 철화는 두 가지 형태 모두에 시문되었다.

입호는 주로 관요지에서 확인되며 관요 이외 지역에서는 출토예가 드물다. 경기도 광주 상림리, 선동리 가마터와 함께 용인의 왕산리 가마터에서도 출토된 바 있으며, 철화백자로 ‘화준을 제작했다는 기록의 내용과도 부합된다. 특히, 선동리 가마터에서 출토된 입호 저부편에는 외면에 철화로 ‘察’자를 시문한 예가 있어 그 용도가 주목된다(도 10). 가마터 출토품과 기형 및 문양이 유사한 전세품을 비교하면 대략 17세기 전반기 입호에는 운룡문외에도 매화문, 죽문, 국화문 등이 비교적 섬세하게 시문된 것으로 보인다. 17세기 중반 이후 관요 가마터에서는 입호의 출토 예가

드무나, 전세품을 통해 18세기에도 지속적으로 제작된 것을 알 수 있다.

원호는 이미 분청사기에도 많이 나타났던 형태로, 조선 전기 청화백자로는 입호에 비해 그 예가 많지 않다.²² 철화가 시문된 것으로는 주로 17세기 중후반기의 관요지에서 확인되는데, 신대리 가마터에서는 소략한 운룡문 등이 시문된 원호가 출토되었다. 관요 이외 가마터에서는 원호가 주요 기종이며, 특히 전라도 장성 추암리, 순천 후곡리, 순천 문길리 등지의 가마터에서는 철화문양의 주요 시문 기종으로



도 10 경기도 광주 산동리 2호 가마터 출토품, 17세기, 이화여자대학교박물관 발굴

나타나고 있다. 이들 가마터에서는 주로 단순한 형태의 문양이 시문되나, 경기도 가평 하판리 가마터에서는 관요 외로는 극히 드물게 운룡문이 시문된 원호가 나타나 주목되었다(도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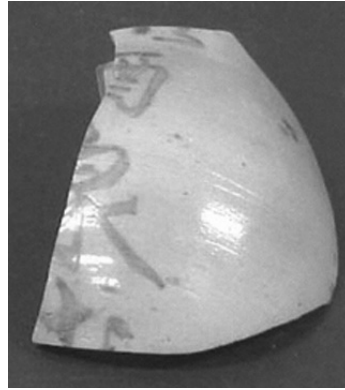
(2) 병

철화백자로 병은 구연이 외반되거나 盤口形이면서 최대지름은 동체의 중하위에 놓이는 것과 앞뒷면이 납작한 扁瓶이 모두 제작되었다.

구연이 외반된 병은 이미 조선 전기에 청화백자로 제작된 예가 있으며, 철화백자로는 관요와 관요 이외 가마에서 이른 시기부터 등장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반구형 구연의 병은 관요보다는 관요 이외 가마터에서 주로 확인되며, 대개 극히 간략하고 도식화된 문양을 시문했다. 17세기 전반 관요의 상림리 가마터에서는 詩文이 있는 병의 동체편이 확인되었고(도 11), 17세기 중반 송정동 가마터에서는 글귀를 적은 병의 동체편이(도 12), 17세기 후반 신대리 가마터에서는 앞뒷면에 죽문을 소략하게 표현한 병이 출토된 바 있다(도 13). 18세기 이후 제작 양상은 전세품 가운데 외반된 구연에 철화로 進上茶瓶을 써넣은 예가 알려져 관요에서의 제작 상황을 추측할 수 있다(도 5).

관요 이외 지역에서는 안성 화곡리와 장성 추암리 등 비교적 운영시기가 이른 가마터부터 철화백자로 제작된 병이 확인되며, 추암리 가마터에서는 외반형과 반구형의 구연이 모두 나타났다. 추암리 가마터의 경우 외반형 구연의 병은 비교적 크고 목이 짧지 않은 형태이며, 반구형 구

²² 尹傲靖, 앞의 논문(2002), p. 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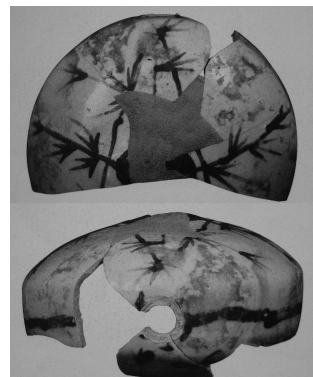


도 11 경기도 광주 상림리
11호 가마터
수습품, 17세기,
국립중앙박물관
수습

도 12 경기도 광주 송정동
5호 가마터 출토품,
17세기,
경기도자박물관
발굴



도 13 경기도 광주 신대리
18호 가마터
출토품, 17세기,
경기도자박물관
발굴



도 14 전남 장성 추암리 가마터 출토품, 17세기,
호남문화재연구원 발굴

도 15 전남 장성 추암리 가마터 출토품,
17세기, 호남문화재연구원 발굴

연의 병은 구연 아래 목이 짧고 소형으로도 제작되었다(도 14). 이어 순천 후곡리 등의 가마터에서는 대체로 목이 짧고 최대동경이 저부 가까이 놓이는 반구형 구연의 병이 확인되었으며(도 8), 이러한 형태는 순천 문길리와 대전 장안동 가마터 출토품과 같이 시기가 늦을수록 점차 동체 형태가 둥글어지거나 통형에 가깝게 변화하는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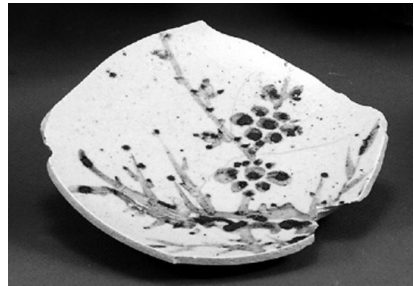
편병은 17세기 전반 관요의 상림리와 선동리 가마터에서 포도문과 난초문, 죽문 등을 시문하여 제작했으며, 17세기 후반 신대리 가마터에서는 간략하게 죽문을 표현한 예가 확인되었다. 관요 이외 지역에서는 장성 추암리 가마터 출토품을 제외하면 출토예가 드물어, 편병의 형태로는 주로 관요를 중심으로 제작되었다고 생각된다(도 15).

(3) 발과 접시

발과 접시류의 철화백자는 관요에서도 내저면에 ‘祭’자를 쓰거나 섬세한 매화문을 표현한 접시가 출토된 바 있다(도 2, 16). 그러나 제작 비중면에서는 관요 이외 가마터 출토품이 중심을 이루며, 가마터별로 일정한 유형의 문양이 확인되고 있다.²³

철화가 시문된 발은 (표 5-A, B)에서와 같이 저부에 꺾임이 있고 측면선이 사선에 가깝게 벌어져 오르는 기형이 주로 출토되었다. 특히, (표 5-A)의 형태는 관요의 경우 17세기 전반 이후 새롭게 등장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 같은 형태로 제작된 철화백자는 충주 하구암리와 영동 노근리, 청양 대박리, 충주 미륵리 등의 충청도 지역 가마터를 중심으로 출토되며, 전라도 지역에서는 장성 추암리와 같이 운영시기가 앞서는 가마터에서 확인되었다. (표 5-B)의 형태는 (A)의 기형이 심화되어 저부의 꺾임이 보다 분명해지며, 전라도 지역의 순천 후곡리와 문길리, 장흥 용문리 가마터의 출토품 일부에서 철화백자로 확인되거나 충청도 지역에서는 운영시기가 늦은 대전 장안동 가마터에서 출토되었다.






철화백자로 제작된 접시는 (표 5-C-E)에서와 같이 저부에서 대체로 완만한 사선을 이루며



도 16 경기도 광주 송정동 5호 가마터 출토품, 17세기, 경기도자박물관 발굴

²³ 관요 이외 가마터에서 출토된 발과 접시의 철화문양 시문과 기형 변화의 관련성에 대한 내용은 宋仁熙, 앞의 논문(2008), pp. 49-54 참조.

표 5 철화문양이 시문된 발과 접시의 주요 기형

발		접시		
A	B	C	D	E
				

벌어지는 형태와 저부에서 사선으로 벌어져 오르다 구연 아래서 크게 꺾이는 형태가 주로 확인되었다. 이 가운데 (표 5-C)의 기형은 주로 조선전기의 접시와 유사한 형태이며, (표 5-D, E)는 새롭게 등장한 형태로 추정된다. 비교적 운영 시기가 앞선 안성 화곡리와 충주 하구암리, 장성 추암리 가마터 출토품 중에는 (C)와 (D)에 가까운 형태의 접시에서 철화문양이 나타났으며, 운영 시기가 상대적으로 늦은 영동 노근리와 대전 장안동, 순천 후곡리와 문길리, 장흥 용문리 등지의 가마터에서는 (D) 또는 (E)와 같은 접시의 형태에 철화가 시문되었다.

이처럼 철화가 시문된 발과 접시는 대체로 이른 시기에는 이전시기부터 제작되어오던 기형과 새롭게 등장한 기형으로 함께 제작되다가 점차 새로운 기형으로 제작되는 변화가 나타났다. 특히 발과 접시에 대한 이른 시기의 제작 양상은 장성 추암리 가마터를 제외하고는 주로 충청도 지역의 가마터에서 확인되었으며, 전라도 지역의 가마터들에서는 철화시문이 대개 새로운 기형을 중심으로 나타났다.

2. 문양 소재의 선택과 표현에 따른 장식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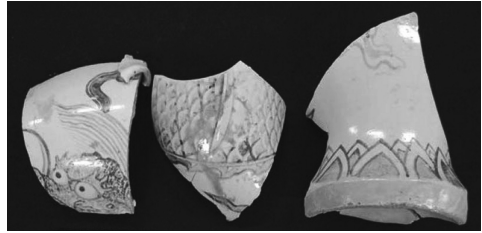
가마터 출토품에서 확인되는 철화백자의 주요 문양 소재는 운룡문, 포도문, 매·난·국·죽문, 초화문류를 들 수 있다. 이 가운데 문양 소재의 특징이 분명한 예는 주로 관요 가마터 출토품이며, 17세기 중후반 이후로는 단순한 형태의 초화문도 확인된다. 관요 이외 가마에서는 대개 초화문류를 중심으로 철화백자가 제작되었으며, 주로 단순한 형태이거나 간략한 기호와 같은 문양이 표현되었다.

(1) 운룡문

철화백자의 운룡문은 관요 가마터를 중심으로 확인되며 관요 외에는 인근 지역의 일부 가마터에서만 출토되고 있다. 이는 17세기 전반기 철화백자의 본격적인 제작이 문헌기록의 내용에



도 17 경기도 광주 선동리 2호 가마터 출토품, 17세기, 이화여자대학교박물관 발굴



도 18 경기도 용인 왕산리 가마터 출토품, 17세기, 한국문화유산연구원 발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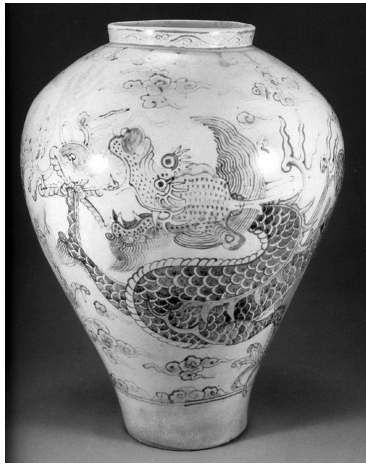


도 19 경기도 광주 신대리 18호 가마터 출토품, 17세기, 경기도박물관 발굴

서와 같이 ‘화룡준’의 필요에 따라 이루어진 것과 관련이 깊을 것이다. 이 시기의 제작 상황은 주로 관요의 상림리와 선동리 가마터 출토품을 통해 알려졌으며, 용의 비늘 내부를 2/3가량 채색하거나 선묘한 구름의 내부를 채색하여 조선전기 청화백자의 양상이 지속되는 것을 볼 수 있다(도 17). 최근 조사된 경기도 용인 왕산리 가마터 출토품에서는 용과 구름의 주문양 뿐 아니라 견부와 저부의 중속문양까지 내부를 채색하였으며, 저부에 보이는 단의 형태 역시 조선전기 입호의 특징이 보다 분명하여 17세기 초반의 양상도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도 18).



도 20 경기도 가평 하판리 가마터 출토품, 17-18세기, 경기도박물관 발굴



도 21 백자철화운룡문호, 18세기,
높이 59.4cm,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17세기 후반에는 관요에서의 운룡문 표현에 새로운 경향이 나타난다. 신대리 가마터 출토품에서는 건부와 저부의 종속문양대가 사라지고 용의 몸체를 표현하는 방식이 점을 찍듯 간단해졌으며, 구름의 표현 역시 내부를 채워 넣지 않고 좌우로 길게 선묘만으로 나타냈다(도 19). 이 같은 표현은 최근 경기도 가평 하판리 가마터에서 변형과 왜곡이 더욱 심화된 형태로도 확인되어 관요와 인근 지역 가마와의 영향관계를 시사하고 있다(도 20).

한편, 18세기로 제작시기가 추정되는 전세품 가운데에는 섬세하게 표현된 운룡문이 확인되는데, 기형과 종속문양대의 특징으로 보아 동시기 청화백자와도 비교된다(도 21). 이러한 예는 17세기 후반 이후 관요 내 철화

백자의 제작에 간략한 표현과 섬세한 표현이 가능했던 상황을 보여주며, 철화백자가 질적으로 다양하게 제작되는 상황과도 연계될 수 있다.

(2) 매·난·국·죽문

17세기 이전 청화백자의 문양소재로 즐겨 시문되었던 매·난·죽문은 17세기 전반 관요 가마터에서 출토된 철화백자에서도 지속적으로 확인된다. 매·죽문은 조선전기 청화백자에서와 같이 한 조를 이루어 구성되는 가운데 기면의 일부를 각기 점유하며 분리되는 양상이 정착되는 것으로 보이며,²⁴ 기형과 종속문양의 특징으로 17세기 전반의 제작시기가 추정되는 전세품에는 각면에 매화문과 죽문이 시문되었다(도 22). 이 같은 양상은 17세기 중후반을 거쳐 신대리 가마터 출토품 중 병의 앞뒷면에는 표현을 달리한 죽문만이 표현되었으며, 동반출토된 편병에서도 앞뒷면은 모두 죽문을 시문한 것으로 보아, 점차 분리되어 개별적으로 시문되는 경향이 보인다(도 13, 23).

난초와 국화문은 줄기와 잎은 난엽으로, 꽃은 국화의 형태로 혼재하는 문양이 17세기 전반

²⁴ 尹傲晴, 앞의 논문(2002), p. 91.

²⁵ 이러한 소재의 구성에 대하여 잎은 난과 같으나 꽃은 다른 식물로 나타나는 형태로, 일반회화에서는 드물지만 17세기부터 18세기에 걸쳐 문양소재로 성행했다는 견해는 李源福, 『朝鮮時代の草蟲圖(1)-白磁에 나타난 草蟲文을 중심으로』, 『韓國의美』 18 (중앙일보사, 1996)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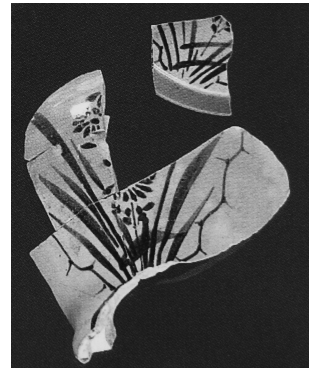


도 22 백자철화매죽문호, 17세기, 높이 36.9cm, 삼성미술관 리움 소장



도 23 경기도 광주 신대리 18호 가마터 출토품, 17세기, 경기도자박물관 발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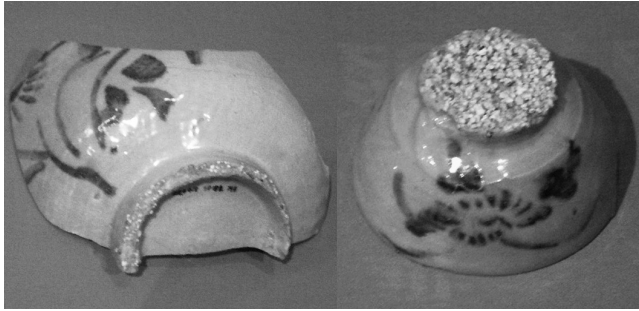
선동리 가마터에서도 출토된 바 있다(도 24).²⁵ 꽃을 중심으로 양 옆에 뺨은 잎줄기를 표현하는 난초문의 형태는 17세기 중반 송정동 가마터에서도 확인되며, 표현이 소략하고 점차 문양소재의 특징이 약화되면서 초화문의 형태와 같이 도식화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화문은 17세기에 걸쳐 점차 독립적인 문양소재로 시문되는 경향이 두드러지는데, 이러한 양상은 조선 중기 회화에서 나타나는 墨菊의 등장과도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²⁶ 특히 17세기 후반 신대리 가마터에서는 국화문에 붓을 굵게 눌러 짙은 듯 세 개의 짧은 선으로 나타낸 잎의 표현이 전형적으로 나타나, 이로부터 보다 단순한 형태로 축약되어 잎의 도식적인 표현으로 정착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도 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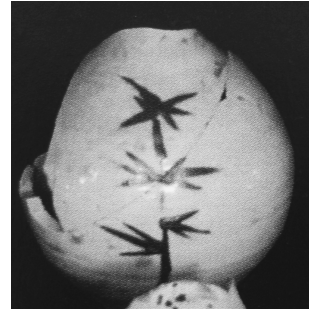
도 24 경기도 광주 선동리 2호 가마터 출토품, 17세기, 이화여자대학교박물관 발굴

관요 이외의 가마터에서는 초화문이 중심을 이루는 가운데, 장성 추암리 가마터의 상대적으로 시기가 이른 층위에서 길고 곧은 줄기의 양쪽으로 여러 갈래의 잎이 돌아있어 죽문으로 추정되는 문양이 확인되었다. 동체의 저부까지 시문된 죽문의 표현은 관요의 선동리 가마터에서도 확인된 바 있으나, 추암리 출토품은 송정동이나 신대리 가마터 출토품과 흡사하면서 보다 축약된 형태로 보인다(도 26).

26 회화에서의 墨菊의 등장은 조선 중기에 이르러 사군자의 전 종목이 다루어지기 시작하다는 점에서도 주목된 바 있다. 洪善杓, 「四君子그림의 역사」, 『朝鮮時代繪畫史論』(문예출판사, 1999), pp. 555-558 참조.



도 25 경기도 광주 신대리 18호 가마터 출토품, 17세기,
경기도자박물관 발굴



도 26 전남 장성 추암리 가마터 출토품, 17세기,
호남문화재연구원 발굴



도 27 경기도 광주 선동리 2호 가마터 출토품, 17세기,
이화여자대학교박물관 발굴



도 28 경기도 광주 송정동 5호 가마터 출토품, 17세기,
경기도자박물관 발굴

(3) 포도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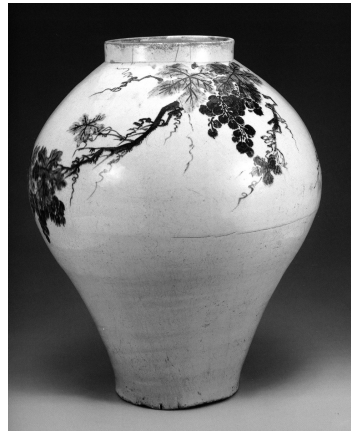
철화백자에 시문된 포도문은 가마터 출토품으로는 17세기 전중반 관요의 선동리와 송정동 가마터에서 확인되었으며, 아직까지 관요 이외 가마터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다. 선동리 가마터 출토품은 조선전기 청화백자에서 전접시 등에 나타난 포도문과 같이 가는 선으로 줄기를 세밀히 표현하고 포도알의 내부를 채색했으며 포도잎은 윤곽선을 두껍게 하고 내부는 채우지 않은 채 잎맥을 표현했다(도 27). 이에 비해 송정동 가마터 출토품에서는 줄기와 잎 등이 전반적으로 간략하게 표현된 것을 볼 수 있다(도 28). 다만, 표현 수법과는 별개로, 잎이 윤곽선만이 아니라 소략하나마 전체적으로 채색된 점은 선동리 출토품과 차이를 보인다. 포도문의 표현이 채색적으로 변화하는 가운데 18세기 이후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전세품은 이러한 경향이 점차 진행되어 섬세한 수법으로 표현된 예이다(도 29).

(4) 초화문

형태상 특정 문양 소재의 영향이 보이면서도 크게 간략화되거나 변형되어 나타나는 초화문은 관요지의 경우 17세기 후반 신대리 가마터에서 확인된 바 있다. 관요 이외 가마터에서는 앞서 제작 현황을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철화백자의 중심 문양으로 출토되었다. 이러한 문양은 본래 단순한 형태로 등장했다기보다는 표현이 간략화되거나 복잡한 문양 구성이 단순화되면서 심화된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관요 가마터 출토품 중 매·난·국·죽문 등의 표현이 간략화된 형태로부터 관요 이외 가마에서의 도식적인 형태로 축약될 수 있는 가능성이 보이는 점과, 안성 화곡리나 장성 추암리 가마터 출토품에서와 같이 동일 가마터 내에서도 상대적으로 복잡한 문양 표현에서 점차 단순하고 간략한 형태로 변화하는 점에서도 그러하다.

또한 초화문에는 경기도와 충청도, 전라도로 구분될 수 있는 지역적 차이가 나타나다가 시기가 늦을수록 점차 기호화, 추상화된 형태가 공통적으로 확인되었다. 이를 통해 철화 문양은 시문 기종에서와 마찬가지로 관요와 관요 이외 가마의 제작으로 이분되기보다는 지역적 특색을 반영하면서도 시기적인 변화를 통하여 공통된 제작 경향을 이루는 것으로 생각된다.

지금까지 가마터 출토품을 중심으로 주요 시문 기종과 문양 소재의 표현에 근거하여 철화백자의 조형적 특징을 파악해보았다. 이는 최근까지의 연구 성과를 포괄하여 철화백자의 제작 경향을 보다 면밀하게 이해하기 위한 것으로, 지역적 특색과 시기별 변화 내에서 공통성을 발견할 수 있었다. 따라서 철화백자의 성격은 관요와 관요 이외 가마의 제작으로만 구분되기보다 출토현황에 따른 조형적 특성을 토대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도 29 백자철화포도문호, 18세기, 높이 53.3cm, 이화여자대학교박물관 소장

IV. 철화백자의 성격과 의의

이제까지 검토한 철화백자의 제작 배경과 제작 현황 및 조형적 특징을 토대로, 가마터 출토품 뿐 아니라 문헌기록과 소비유적의 출토 상황을 포괄적으로 검토하여 17-18세기 철화백자의 특성을 파악해보고자 한다. 이러한 특성의 파악은 문양자기로서 철화백자의 양적인 확산 뿐 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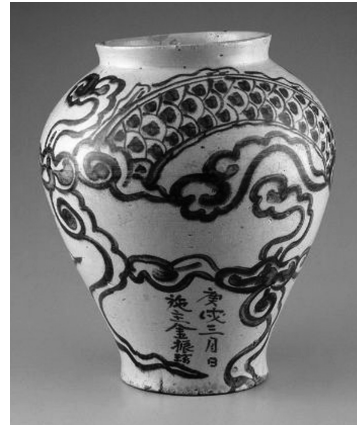
나라 질적 다양성과 인식의 변화를 통해 저변이 확대되어가는 현상을 이해함으로써 철화백자가 갖는 의미를 밝힐 수 있을 것이다.

1. 문양자기의 확산과 철화백자의 저변화

관요 이외 지역의 요업 활동에 대한 관요의 영향력이 17세기 이후로도 적지 않았던 가운데,²⁷ 17세기 전반 관요의 철화백자 제작은 철화로 문양 장식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주었다. 이에 각지에서 이루어진 철화백자의 제작은 지방의 요업 활동이 지역적 수요에 대응하면서 문양이 장식된 자기를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먼저, 관요의 철화백자 제작이 관요 인근 가마에 미치는 영향관계는 철화안료의 활용 뿐 아니라 문양표현의 유사성에서도 확인된다. 이러한 점에서 경기도 가평 하판리 가마터에서는 운룡문호가 출토되어 주목된 바 있다(도 20). 운룡문의 철화백자는 17세기 전반 '화룡준'의 제작과 연관되어, 관요 내에서 철화안료의 쓰임을 부각시키며 17-18세기에 걸쳐 지속적으로 제작되었다. 하판리 출토품은 용과 구름의 표현이 매우 간략화되고 몸체 일부가 생략되는 양상이 관요에서 17세기 후반 이후 보이는 운룡문의 변화와 연계된다. 또한 백자의 제작 수법이 조질일수록 문양의 간략화 정도와 표현 수법이 떨어지는 점에서 철화백자가 질적으로 다양하게 제작된 측면도 확인할 수 있다.

운룡문을 통해 철화백자의 제작 상황을 알 수 있는 예는 전세품으로도 확인된다(도 30). 이 호는 한 면에 '庚戌三月日 施主金振珪'의 명문이 있으며, 명문에 나타난 제작 목적과 제작자의 이름으로 보아 관요에서 私燔으로 주문 제작되었을 가능성도 있다.²⁸ 이러한 예는 운룡문의 호가 특수한 수요로 주문 제작되었던 상황을 보여주는 것으로, 제작 목적과 관련하여 경기도 회암사



도 30 백자철화운룡문호, 18세기, 높이 32.5cm, 보스톤미술관 소장

27 관요 가운데 특히 주변요에서의 출토품과 관요 이외 지역의 가마터 출토품이 기형과 받침법, 빈조방식 등에서 영향 관계가 추론된다는 견해는 崔允貞, 「朝鮮 17-18世紀 前半 地方白磁 研究」(홍익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2004) pp. 52-57 참조.

28 명문의 '庚戌'은 1670년 또는 1730년이나 1790년으로도 추정 가능성이 있으나, 시주자 김진현의 구체적 행적이 파악되지 않으므로 추후 자료를 기대한다.

29 경기도박물관·기전문화재연구원, 『檜巖寺Ⅱ 7·8단지 발굴조사 보고서』(2003).

지에서도 몸체 일부만을 성글게 표현한 철화백자 운룡문 호가 출토된 바 있다(도 31).²⁹

운룡문의 수요에 대해서는 소비 유적에서의 출토 상황도 주목된다. 운룡문의 철화백자는 서울과 경기 일대 주요 유적 외에 확인되지 않았으며, 경희궁지³⁰와 남한행궁지³¹, 종묘 전교 유적³²을 비롯해, 혼련도감 추정지인 동대문운동장 유적³³, 청계천 오간수문지³⁴, 육조거리 추정 지역인 광화문 광장 유적³⁵과 원각사지³⁶ 등이 포함된다. 이 같은 출토 현황은 운룡문의 수요층이 일부 계층에 국한되고 있었음을 알려주는 자료가 될 것이다. 이러한 점으로 볼 때, 왜곡되고 간략화된 운룡문이라도 시문 수법과 도상 체계의 해체를 들어 운룡문의 철화백자를 민수용으로 단순 규정하기는 어렵다. 운룡문호가 민수용으로 확대되는 시기는 청화백자로 제작된 운룡문호가 꿀을 담아 보관하는 용도로 사사로이 사용되는 19세기의 기록이나, 20세기 전반에 이르러 철화백자의 운룡문호가 음식기로 사용되는 정황과 관련하여 대략 19세기 이후로 생각된다.³⁷

한편, 철화안료를 활용한 장식 가능성은 여러 지역에서 문양 자기에 대한 수요를 반영하며 지방의 요업 활동에도 영향을 주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각지의 가마터에서 철화백자의 출토 비율이 제한적이었던 점과, 철화백자가 출토되는 유적 성격이 주로 관아와 사찰로 나타나는 점,



도 31 경기도 회암사지 출토품, 18세기, 경기도박물관·기전문화재연구원 발굴

30 단국대학교박물관, 『整備·復原을 위한 慶熙宮址 第二次 發掘調査報告書』(1987) 및 서울역사박물관, 『서울의 도요지와 陶磁器』(2006).

31 한국토지공사 토지박물관, 『南漢行宮址 第2次 發掘調査報告書』(2000) 및 『南漢行宮址 第4·5次 發掘調査報告書』(2003).

32 서울역사박물관, 『서울 종묘광장 인근유적 발굴조사-4차 현장설명회(외대문계단, 어구, 종묘앞길, 종묘전교)-』(2010).

33 중원문화재연구원, 『동대문 디자인플라자&파크 건립부지내 발굴조사 지도위원회의 자료-야구장부지(하도감 및 혼련원 공원터)-』(2008).

34 서울역사박물관, 『서울발굴유물특별전Ⅲ 청계천』(2006).

35 한강문화재연구원, 『서울 광화문광장 조성사업부지내 문화재 정밀 발굴조사 지도위원회』(2008).

36 서울역사박물관, 『서울 탑골공원 원각사지 시굴조사 보고서』(2002) 및 『서울의 도요지와 陶磁器』(2006).

37 서유구(徐有榘, 1764-1845)의 『林園經濟志』에는 관요에서 제작된 청화백자 운룡문호에 꿀을 담아 보관할 수 있다는 기록이 있으며(“瓷樽, 廣州官窯造者佳, 形如酒罇而大, 用回青畫魚龍雲物之狀, 蓋頂作花蕊鈕, 可貯蜂蜜”), 아사카와 다쿠미(淺川巧, 1891-1931)의 『朝鮮陶磁名考』에서는 용의 몸체만 간략히 표현된 운룡문의 철화백자호를 삼화와 함께 ‘大缸’으로 소개하고, 용문이나 초화문을 시문하여 젓갈을 담는 용도로 사용한다고 밝혔다. 아사카와 다쿠미, 『조선의 소반·조선도자명고』(심우성 옮김, 학고재, 1996), pp. 157-158 참조.

그리고 이러한 유적에서 확인되는 철화백자에 인접 지역의 가마터에서 보이는 것과 동일한 유형의 문양이 나타나는 점에서도 그러하다. 대부분의 유적에서 출토된 철화백자에는 인근 가마터의 출토 양상과 일치하는 초화문이 표현되었는데,³⁸ 출토되는 유적의 성격과 관련하여 보면 그 쓰임은 지방에서도 단순 용도에 그쳤던 것은 아니었다고 생각된다. 일례로, 전라우수영지에서는 건물기단 아래 대접을 덮어 묻어 둔 철화백자호가 출토되었으며, 지진구의 용도로 사용되었으리라 추측되어 특수한 성격을 띠고 있었다.³⁹

철화백자를 비롯하여 전반적으로 증가된 자기의 수급은 16세기 후반 이후 발달한 場市와 각지에서 나타난 沙器店을 통해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된다. 지방 장시를 통해 자기가 유통되는 상황은 이미 17세기 이전부터 나타나는데, 16세기 말 충청도 임천 지역 장사에서 교역된 물품 중에도 ‘沙器’의 품목이 확인되었다.⁴⁰ 철화백자 역시 이러한 교역이 가능했을 것으로, 철화백자의 지역적 수급 상황은 18세기 후반의 기록에서와 같이 지방의 사기점에서 철화백자 지석이 주문을 통해 제작, 매매되는 것으로도 살펴볼 수 있다.⁴¹

2. 철화백자의 인식 변화와 ‘儉朴’의 구현

17세기 후반 이후 시문안료로서 철화안료가 정착되고 관료와 각지의 가마에서 철화백자가 제작되는 상황은 18세기에 이르러 철화안료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확인되는 것과도 무관하지 않다. 특히 영·정조대에 이르면 사치 풍조의 만연을 경계하기 위해 청화백자의 사용을 금하면서 철화백자를 상대적으로 ‘검박’ 함으로 인식했을 가능성을 살펴볼 수 있다. 영조대의 기록에서는 당시 청화백자의 제작이 활발하여 철화백자의 제작은 줄어들게 된 상황이 나타나면서도, 청화백자를 사치품으로 규정하면서 철화안료의 쓰임에 대해 다시금 관심을 보이고 있다.⁴²

³⁸ 宋仁熙, 앞의 논문(2008), pp. 128-146 (별표5-9) 참조.

³⁹ 명지대학교부설 한국건축문화연구소, 『全羅右水營 望海樓址 및 北門址 發掘調査 報告書』(2004).

⁴⁰ 오희문(吳希文, 1539-1613)의 『瓊尾錄』, 癸巳, 甲午, 乙未, 丙申日錄(1593-1596) 참조.

⁴¹ 노상추(盧尙樞, 1746-1829) 『盧尙樞日記』 卷1 英宗四十四年戊子日記(1768) “중형과 장천 위양으로 향하여 관동에 이르러 … 잠시 쉴 겸 사기점 토굴에 들어가니 지석과 비슷한 것들이 많이 있어 들어서보니 사기흙으로 만든 지석이였다. 파는 사람에게 물으니 다른 사람이 구하실 청한 것이라 하였다. 석간주로 내용을 적고 구운 방법이 사기와 같았다.” (“余與從兄向長川潤陽而至官洞 …故少憩于沙器店土窟中, 有似誌石者多, 故取觀則以沙器土爲誌石矣, 問店漢則云他人求請, 而以石間朱書誌煮法與沙器同云”)

⁴² 『承政院日記』 英祖30年7月17日條 “하교하기를, 자기의 그림에는 예전에 석간주를 썼는데 이제 들으니 회청으로 그린다고 한다. 이것도 사치한 풍습이니 이 뒤로 용준을 그리는 외에는 일체 엄금하도록 하라. 하였다.” (“敎曰, 磁器之畫, 古用石間朱, 今聞以回靑畫之云, 此亦多風, 此後則畫龍樽外, 一切嚴禁”)

철화백자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관련하여 18세기 말의 기록은 더욱 주목된다. 왕실에서 하사받은 주병이 검박한 것인데, 철화안료로 문양을 시문했으며 이것이 ‘궁중의 검박한 덕’을 밝힌다고 소개하는 것이다.⁴³ 특히 이 기록에서 언급된 철화백자의 덕은 ‘당병’과 ‘왜합’에 비할 정도로, 달라진 철화백자에 대한 인식의 단면을 보여준다.⁴⁴

이는 시문안료로서 철화안료가 부각되고 관요에서 본격적인 철화백자의 제작이 이루어지는 17세기 전반과 비교하여 더욱 그러하다. 즉, 당시 철화안료의 사용은 ‘가화’의 사용이나 청화백자의 수입에 대신해 ‘부득이’ 하게 이루어진 것이었으며, 처음부터 철화안료를 청화안료에 대체할 만한 최적의 안료라고 여겼던 것은 아니었다. 이러한 인식의 차이는 17세기 전반 선동리 가마터에서 ‘祭’자를 써넣은 청화백자와 철화백자가 동반 출토되는 것으로도 확인된다. 출토품 가운데 청화백자로 제작된 접시는 굽형태와 번조수법이 우수하며 내저면에 원권을 두르고 해서체로 단정하게 글자를 써넣은 반면, 철화백자는 호의 외저면과 접시의 내외저면에 원권없이 글자만 써넣었다. 또한 접시의 내저면에 철화안료로 ‘壽進宮祭’를 써넣어 왕실 내 비교적 위계가 낮은 제사용으로 제작된 예도 있어, 청화와 철화안료의 쓰임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17세기 전반 이래 백자에서 철화안료의 사용이 정착되고 있었던 현실과 더불어, 18세기 이후에 들어서는 철화백자를 오히려 청화백자의 사치함에 대한 ‘검박’의 구현으로서 인식하게 되는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V. 맺음말

본 연구는 관요와 지방의 요업을 상호적으로 이해함으로써 17-18세기 철화백자의 시기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시도로부터 비롯되었다.

이를 위하여 철화백자의 본격적인 제작과 변화와 관련한 제작배경을 살피고, 철화안료의

⁴³ 박준원(朴準源, 1739-1807) 『錦石集』卷4 “주병을 내사하시니 질이 검박하고 형태가 예스럽다. 기뻐 읊조리노라. 석간 주로 검은 구름을 새겨 칠하니… 이 기물은 궁중의 검박한 덕을 밝히고 당병과 왜합에 감히 벗하노라.” (‘內賜酒瓶, 質儉形古, 喜而有詠, 石間朱鑿纒玄雲… 此器宮中昭儉德, 唐瓶(委檀敢爲羈’) ”

⁴⁴ 이희경(李喜經, 1745-1805)은 정조대 검약을 숭상하여 문양 자기의 제작을 금하면서 부호들이 중국이나 일본의 자기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고 하였고(『雪岫外史』(亞細亞文化社, 1986), pp. 99-100), 이규경(李圭景, 1788-?)은 당시 일본자기가 종이와 같이 얇고 희기가 옥과 같으며 미끄러질듯이 윤이 난다고 하여 그 질을 높이 평가한 바 있다. (『五洲衍文長箋散稿』, 「古今瓷窯辨證設」 “倭瓷則其薄如紙, 其白如玉, 滋潤欲流”)

쓰임이라는 관점에서 안료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함께 안료의 다양한 활용이 철화백자의 제작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또한 각지의 가마터에서 나타나는 철화백자의 제작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의 수요와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보았다. 이에 따라 가마터 출토품을 중심으로 관요와 관요 이외 가마터의 제작 양상을 폭넓게 다루어 시문 기종과 문양 소재의 표현에서 나타날 수 있는 조형적 특징을 파악하였다.

철화백자는 주로 호와 병, 발과 접시의 기종으로 제작되는데, 관요 이외 가마터에서 호와 병, 발과 접시의 제작이 구분되는 지역적 특색도 나타났다. 관요를 중심으로 운룡문, 매·난·국·죽문 등이 섬세하게 나타났던 문양의 표현은 점차 간략한 초화문이 등장하며, 이러한 경향이 관요 이외 가마에서의 단순한 문양 시문에도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았다. 또한 관요 이외 가마에서 제작된 초화문은 시문 기종에서와 마찬가지로 표현 양상에 지역적 특색이 나타나지만, 시기가 늦을수록 점차 공통화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17세기에 들어 본격화된 철화백자의 제작에는 시문안료로서 철화안료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반영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17-18세기의 철화백자가 실제로 청화백자에 대한 수요를 대체했다고만은 볼 수 없다. 이는 같은 시기 청화백자에 대한 지향과 청화 안료에 대한 선호를 드러내는 기록이 지속적으로 확인되었던 점과 제기 등 일부 중요 기물에 청화 안료를 시문한 예들이 확인된다는 점 등에서도 그러하다.

다만, 17-18세기 철화백자는 안료의 위상이 제고되고 그 쓰임이 점차 일반화되는 양상과 맞물려 '문양을 그린' 자기가 저변화되는 상황과 연계하여 이해될 수 있다. 특히, 철화백자에 나타나는 문양의 표현에 관요와 관요 이외 가마간 유사성이 확인되며, 관요 이외 가마들 간에는 관요와의 인접성에 따라 나타났던 차이가 점차 줄어들고 유사한 경향을 띠게 되는 것으로 보아, 철화백자의 확산은 질적인 다양함으로 나타났다. 이에 17-18세기 철화백자는 조선시대 도자사에서 안료장식을 했던 백자의 전통을 계승하는 동시에, 조선후기 백자의 저변이 확대되는 현상을 확연히 보여주는 한 지표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key words) _ 鐵畫白磁(White porcelains painted in underglaze iron-brown), 靑畫白磁(Blue and white porcelains), 官窯(official kilns), 地方窯(local kilns), 石間硃(Iron-oxide red), 石間朱(Iron-oxide red ochre), 畫龍樽(Hwaryongjun, Jar with dragon design)

▣ 투고일 2010년 5월 26일 | 심사개시일 2010년 5월 29일 | 심사완료일 2010년 7월 12일 ▣

참고문헌

1. 原典

『盧尙樞日記』

『農巖集』

『頭陀草』

『雪岫外史』

『承政院日記』

『五洲衍文長箋散稿』

『林園經濟志』

2. 圖錄

서울역사박물관, 『서울발굴유물특별전Ⅲ 청계천』, 2006.

_____, 『서울의 도요지와 陶磁器』, 2006.

이화여자대학교박물관, 『도요지 발굴성과 20년』, 2001.

한국고고미술연구소, 『東垣李洪根蒐集名品選-陶磁器-』, 1997.

해강도자미술관, 『海剛陶磁美術館』, 1990.

3. 調査報告書

경기도박물관·기전문화재연구원, 『檜巖寺Ⅱ 7·8단지 발굴조사 보고서』, 2003.

경기도자박물관, 『가평 하면-일동 간 도로확장공사 구간 내 문화재 발굴조사 지도위원회 회의자료』, 2008.

국립중앙박물관·경기도박물관, 『京畿道廣州中央官窯 窯址地表調査報告書 圖版篇』, 1998.

_____, 『京畿道廣州中央官窯 窯址地表調査報告書 解説篇』, 2000.

명지대학교부설 한국건축문화연구소, 『全羅右水營 望海樓址 및 北門址 發掘調査 報告書』, 2004.

서울역사박물관, 『서울 탐골공원 원각사지 시굴조사 보고서』, 2002.

이화여자대학교박물관, 『中部高速道路建設豫定地域 廣州朝鮮白磁窯址 發掘調査報告-樊川里5號·仙東里 2, 3號-』, 1986.

- _____, 『安城 和谷里陶窯址』朝鮮白磁·高麗陶器窯址發掘調查報告書, 2000.
- 조선관요박물관, 『廣州의 朝鮮白磁窯址—廣州市內 朝鮮時代 磁器窯址 分布現況—』, 2004.
- _____, 『광주시청사 이전 예정부지 문화재 시·발굴조사 지도위원회 회의자료』, 2004.
- _____, 『광주시청사 이전 부지 내 유적 2차 시·발굴조사 지도위원회 회의자료』, 2006.
- 중앙문화재연구원, 『永同 沙夫里·老斤里 陶窯址』, 2003.
- _____, 『順天 文吉里 白磁窯址』, 2004.
- _____, 『靑陽 大朴里 白磁窯址』, 2007.
- 충남발전연구원, 『大田 長安洞 白磁窯址』, 2002.
- 충북대학교박물관, 『충주 미륵리 백자가마터』, 1995.
- 한강문화재연구원, 『서울 광화문광장 조성사업부지내 문화재 정밀 발굴조사 지도위원회』, 2008.
- 한국문화유산연구원, 『가평 하면-포천 일동간 도로 확장 포장공사구간 내 문화유적 발굴조사 가평 하판리
웃노채 가마터-지도위원회의 자료』, 2008.
- _____, 『한국외대 용인캠퍼스 제2기숙사부지내 문화유적 발굴조사-지도위원회의 자료』, 2010.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韓國白磁陶窯址』, 1986.
- 한국토지공사 토지박물관, 『南漢行宮址 第2次 發掘調查報告書』, 2000.
- _____, 『南漢行宮址 第4·5次 發掘調查報告書』, 2003.
- 한림대학교박물관, 『강화 조선궁전지(외규장각지)』, 2003.
- 호남문화재연구원, 『長成 鷲岩里窯址』, 2006.

4. 單行本

- 姜敬淑, 『韓國陶磁史』, 일지사, 1989.
- _____, 『한국 도자기 가마터 연구』, 시공사·시공아트, 2005.
- 金英媛, 『조선시대 도자기』, 서울대학교출판부, 2003.
- 方炳善, 『조선후기 백자 연구』, 일지사, 2000.
- _____, 『순백으로 빛어낸 朝鮮의 마음』, 돌베개, 2002.
- _____, 『왕조실록을 통해 본 조선도자사』, 고려대학교출판부, 2005.
- 宋贊植, 『朝鮮後期社會經濟史의 研究』, 일호각, 1997.
- 尹龍二, 『韓國陶磁史研究』, 문예출판사, 1993.
- 鄭良謨, 『韓國의 陶磁器』, 문예출판사, 1991.

5. 論文

- 姜敬淑, 「梨大博物館 所藏「青華白磁松竹人物文 항아리」와 「鐵畫白磁 雲龍文 항아리」, 『考古美術』 136·137, 한국미술사학회, 1978.
- 姜萬吉, 「分院研究-17-8世紀 朝鮮王朝 官營手工業體의 運營實態」, 『亞細亞研究』 20,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1965.
- 金英媛, 「分院 官窯와 地方窯」, 『광주분원과 지방도자』 특별전시회 왕실도자기의 산실 경기도 광주 기념 학술대회 자료집, 경기도박물관, 2001.
- _____, 「조선시대 문헌에 보이는 도자 명칭」, 『항산 안휘준 교수 정년퇴임 기념 논문집 미술사의 정립과 확산』 2권, 사회평론, 2006.
- 方炳善, 「孝肅宗時代의 陶磁」, 『講座美術史』 6, 한국미술사연구소, 1994.
- _____, 「朝鮮時代 後期 白磁의 研究」, 동국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1997.
- _____, 「雲龍文 분석을 통해서 본 조선후기 백자의 편년 체제」, 『美術史學研究』 220, 한국미술사학회, 1999.
- _____, 「서울 지역 요지(窯址) 출토 조선 도자」, 『서울의 도요지와 陶磁器』, 서울역사박물관, 2006.
- _____, 「17세기, 인·숙종기의 백자」, 『講座美術史』 33호, 한국미술사연구소, 2009.
- 安星稀, 「朝鮮時代 陶磁祭器 研究」, 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2005.
- 尹龍二, 「朝鮮陶瓷의 變遷」, 『朝鮮時代陶瓷名品圖錄』, 덕원미술관, 1992.
- _____, 「朝鮮 18世紀 官窯의 變遷과 靑畫白瓷」, 『丹豪文化研究』 2, 용인대학교 전통문화연구소, 1997.
- 尹傲靖, 「朝鮮 15-16世紀 靑畫白磁 研究」,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2002.
- _____, 「朝鮮 15·16세기 靑畫白磁의 製作과 使用-문헌자료와 요지출토품을 중심으로」, 『美術史學研究』 250-251, 한국미술사학회, 2006.
- 張南原, 「18世紀 靑畫磁의 研究」, 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1988.
- _____, 「朝鮮時代 後期 白磁의 새로운 傾向」, 『考古美術』 183, 한국미술사학회, 1989.
- _____, 「朝鮮後期 李圭景의 陶磁認識-「五洲衍文長箋散稿」의 「古今窯辨證說」과 「華東陶瓷辨證說」을 중심으로」, 『美術史論壇』 6, 한국미술연구소, 1998.
- 張起熏, 「朝鮮時代 17世紀 白磁의 研究-廣州 分院窯址 出土品을 中心으로-」, 홍익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1996.
- _____, 「朝鮮時代 白磁龍樽의 樣式變遷考」, 『미술사연구』 12, 미술사연구회, 1998.
- 田勝昌, 「朝鮮前期의 白磁전접시 考察」, 『호암미술관 연구논문집』 2, 호암미술관, 1997.
- _____, 「朝鮮 17世紀 前半 分院의 白磁樣式 變化」, 『美術史學研究』 224, 한국미술사학회, 1999.
- _____, 「朝鮮後期 白磁裝飾의 民畫要素 考察」, 『미술사연구』 16, 미술사연구회, 2002.
- _____, 「조선시대 백자가마의 발굴성과 검토」, 『제29회 한국상고사학회 학술발표대회-도자(陶瓷)고고학을 향하여』, 2003.

- _____, 「조선 관요의 분포와 운영체계 연구」, 『미술사연구』 18, 미술사연구회, 2004.
- 鄭良謨, 「李朝陶磁の編年」, 『世界陶磁全集』 19, 李朝, 小學館, 1980.
- _____, 「白磁·粉靑沙器」, 『國寶』 8, 예경산업사, 1984.
- _____, 「朝鮮朝磁器에 나타난 龍의 紋樣」, 『박물관신문』, 국립중앙박물관, 1988.1. 1.
- 崔允貞, 「朝鮮 17-18世紀 前半 地方白磁 研究」, 홍익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2004.
- _____, 「조선중기 지방백자 연구」, 『미술사연구』 21, 미술사연구회, 2007.

국문초록

조선의 17-18세기는 도자사적으로 조선전기에서 후기로 이어지며 전통과 새로운 양상이 공존하는 때이다. 이 시기는 문헌 기록과 출토유물을 통해 이전 시기에 비해 철화백자가 활발하게 제작되었음이 확인되고 있다. 이에 요업 배경과 더불어 관요산 철화백자의 양식적 특징을 파악하려는 연구가 일찍부터 시도되었으며, 관요 이외 가마에서 제작된 철화백자에 대한 연구는 최근에 이르러 부분적으로 진행되었다. 따라서 지금까지 이루어진 연구 및 조사 성과를 바탕으로 조선시대 철화백자를 중앙과 지방을 이분하거나 또는 개별적으로 다루기보다는 상호 관계 속에서 이해할 필요성이 요망되어 왔다. 또 가마터 이외의 다양한 성격의 유적 조사를 통해 꾸준히 축적되어 온 철화백자의 출토 상황 역시 총체적인 관점에서 재검토의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다.

본 연구는 관요와 지방의 요업을 상호적으로 이해함으로써 17-18세기 철화백자의 시기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시도로부터 비롯되었다. 이를 위하여 철화백자의 본격적인 제작 및 변화와 관련한 배경을 살피고, 철화안료의 쓰임이라는 관점에서 안료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함께 안료의 다양한 활용이 철화백자의 제작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또한 각지의 가마터에서 나타나는 철화백자의 제작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의 수요가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보았다. 이에 따라 가마터 출토품을 중심으로 관요와 관요 이외 가마터의 제작 양상을 폭넓게 다루어 시문 기종과 문양 소재의 표현에서 나타날 수 있는 조형적 특징을 파악했다.

철화백자는 주로 호와 병, 발과 접시의 기종으로 제작되었는데, 관요 이외 가마터에서 호와 병, 발과 접시의 제작이 구분되는 지역적 특색도 나타났다. 관요를 중심으로 운룡문, 매·난·국·죽문 등이 섬세하게 나타나던 문양의 표현은 점차 간략한 초화문이 등장하며, 이러한 경향이 관요 이외 가마에서의 단순한 문양 시문에도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았다. 또한 관요 이외 가마에서 제작된 철화백자의 문양에는 시문 기종에서와 마찬가지로 표현 양상에 지역적 특색이 나타나지만, 시기가 늦을수록 점차 공통화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17-18세기 철화백자는 안료의 위상이 제고되고 그 쓰임이 점차 일반화되는 양상과 맞물려 ‘문양을 그린’ 자기가 저변화되는 상황과 연계하여 이해될 수 있다. 특히, 철화백자에 나타나는 문양의 표현에 관요와 관요 이외 가마간 유사성이 확인되며, 관요 이외 가마들 간에는 관요와의 인접성에 따라 나타났던 차이가 점차 줄어들고 유사한 경향을 띠게 되는 것으로 보아, 철화백자의 확산은 질적인 다양함으로 나타났다. 이에 17-18세기 철화백자는 조선시대 도자사에서 안료장식을 했던 백자의 전통을 계승하는 동시에, 조선 후기 백자의 저변이 확대되는 현상을 확인시켜주는 한 지표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The Characteristics of Joseon White Porcelains Painted in
Underglaze Iron-Brown of the 17th-18th Century
The Case of Porcelains Discovered at Ancient Kiln Sites**

Song In-hee*

The 17th-18th century, corresponding to the mid-Joseon period, was a transition period in the dynasty's ceramic history, during which the aspects of earlier traditions existed side-by-side with new aspects of late Joseon ceramics. An important body of documentary and archaeological evidence confirms that white porcelains with underglaze iron-brown decoration were much more actively produced during this period than in the past. Attempts at understanding the stylistic characteristics of white porcelains painted in underglaze iron-brown produced at official kilns have been made along with studies on the general background of the pottery industry. Research on underglaze iron-brown-decorated white porcelains that were produced in kilns other than the official kilns began only recently. For a better assessment of this category of Joseon white porcelains, it is important that these two areas of research be brought together so that underglaze iron-brown-decorated white porcelains from the capital area can be understood in light of those produced outside it, without artificially separating the two. Furthermore, the growing stock of underglaze iron-brown-decorated white porcelains discovered through archaeological investigations,

* Curator at the Sangmyung University Museum

from places other than kiln sites, has also offered possibilities for more comprehensively understanding this tradition of ceramics.

This study started out as an attempt to determine the characteristics of white porcelains painted in underglaze iron-brown produced in the 17th-18th century by looking at both porcelains produced in official and local kilns. In doing so, I have examined the historical background of the production of underglaze iron-brown-decorated white porcelains in this era to understand what promoted their production and how the industry evolved over time. Two initial hypotheses that I had in mind were on the one hand that the changing perception of pigments and their more varied use must have had something to do with the production of white porcelains decorated with iron pigments, and on the other hand that the production activity was to an important extent affected by demand existing in individual regions where they were produced. Therefore, I have tried to determine the types of white porcelain vessels most frequently decorated with underglaze iron-brown designs and their visual characteristics by looking at both porcelains produced in official and local kilns.

White porcelain wares that were most frequently decorated with underglaze iron-brown designs were jars, vases, bowls, and plates. Local kilns in certain regions were either specialized in jars and vases or in bowls and plates, rather than producing all four types of vessels evenly. In official kilns, highly-detailed designs such as dragon-and-clouds, apricot blossoms, orchids, chrysanthemums and bamboos that had been initially used were gradually replaced by simpler flower and plant designs. This shift appears to have also influenced porcelains produced in local kilns so that the simple flower and plant designs became dominant. Iron-brown flower and plant designs seen in porcelains produced in local kilns show a degree of regional variation, just as types of vessels produced varied according to regions. This regional difference, however, eventually faded away over time.

The increased production of white porcelains painted in underglaze iron-brown in the 17th-18th century may be understood in relation to the improvement in status of iron-brown pigment and its more generalized use, further connected with the growing popularity of the 'decorated porcelains' in ceramic industry. There existed a great degree of similarity in decoration between porcelains produced in official kilns and those in local kilns, while the initial difference in design among local kilns depending on their relative distance to the

official kilns gradually diminished. This suggests that the production and use of underglaze iron-brown-decorated white porcelains made an important contribution to the variety of late Joseon ceramics. Therefore, the white porcelains painted in underglaze iron-brown took an important position in between ‘decorated porcelains’ in ceramic industry of Joseon and their active production of the 17th-18th century is indicative of the growing popularity of white porcelains in late Joseon society.